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0월 27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창세기 26장 12-22절

설교제목 : “성숙의 길 7(은혜)”

이삭은 흉년을 경험하게 되자, 그랄 땅을 거쳐 사시사철 물이 풍부하여 목축에 적합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머물며 그 땅에서 목축과 농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하여 백배를 얻게 되었습니다.(12-13절) **백배**는 산술적인 차원에서 백 배가 아니라, 문학적인 의미에서 **‘최고, 최대의 수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어 본문에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12절의 **‘백배나 얻었고’**에 걸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뒤 13-14절의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큰 거부가 되었다’**는 내용에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2-14절이 주는 교훈은 **백배의 수확**이란 최대의 수확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해에 모든 농사지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따라서, 이삭만 그 해에 100배의 수확, 즉 최대의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그랄 사람들도 그 해에 맘흘려 농사한 자들은 모두 최대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농사하지 않았는데, 최대의 수확을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감당해야할 땀과 수고를 감내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풍성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 문맥을 살펴보았지만,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된 성경의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합니다.(14절) 인간이 본래 악하고 못난 존재인지라 타인의 성공에 배 아파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는 단순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자가 아닌데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특별히 복을 받은 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랄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에서 특별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13-14절에서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없는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때에,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 역시 특별한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엡3:7)**라고 합니다. 더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6)**고 고백한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랄에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

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적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공식입니다. 순종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우물을 메우고, 떠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속에서 반항도 못하고 바보처럼 계속해서 자기 거처를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자고 덤벼드는 데도, 싸우지도 않고 계속해서 물러섭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다 지쳐서 다툼을 그치게 됩니다.(15-22절)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면, 그 이전의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인 최인철 박사는 ‘누구나 큰 그림을 한 번 보고 나면, 더 이상 그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의미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다투고, 작은 갈등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을 얻든지, 아니면 서로 같이 싸우든지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말도 안되는 상황과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론 저주기도 하고, 뒤로 물러설 줄도 압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치고 박고 싸우고, 원수처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기 성질과 자기 수준대로, 자기 살아가는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성숙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힌트가 18절에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뺏던 우물들을 다시 뺏다고 합니다.(18절) 마틴 로이드 존스의 주석을 보니까,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주해를 했습니다. ‘현 시대야 말로, 아버지의 세대가 뺏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시대이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가 뺏던 우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담백하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신앙을 통해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신앙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우물이 막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세대의 담백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담백하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이삭이 농사하여 백배나 얻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세 가지를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역 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